

아산재단은 'SOS 복지지원사업'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.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.

#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




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아산재단에 감사합니다. 저는 2018년 4층 높이의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. 쇠골, 갈비뼈, 허리, 척추 등 골절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산재장해 9급 판정을 받았습니다. 다행히 재활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되었지만 사업 실패로 진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습니다.

2019년부터 척추 장애로 장애 수당과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, 고통스러운 사고의 기억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. 밤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드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. 깨어있을 때도 앰블런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.

고통을 참다 보니 치아가 10개나 손상됐습니다. 어려운 형편에 치과 치료를 받으려니 돈이 부족해서 카드 2개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.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쳐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정신과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.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고독감과 무기력에 지쳐갔습니다.

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부의 지원도 끊겨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아산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지원금으로 식료품과 공공요금, 치과 치료비, 상담까지 지원받게 되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 우울증과 무력감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.

매일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는데 감사하는 마음과 삶의 의욕이 생겨나서 몸이 아파도 조금씩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은 복지관도 방문하고, 하루 세 시간씩 공공근로도 하고 있습니다. 아산재단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로 감사합니다.  백은성 드림